

총여학생회 여학일꾼 새로나기 배움터 1차 기획안

들어가며.....

간부학교하면 우선은 딱딱하고 총여학생회에서 다 준비하고 나머지 여학일꾼들은 몸만 가면 되는 곳, 안가도 별일없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년 사업을 결의하며 가장 먼저 힘을 얻게 되는 자리임과 동시에 가장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학일꾼으로써 기본적으로 총여학생회의 1년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여성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1년동안 풀어나가야할 사업들은 어떤 것들인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좋은 자리가 되리라 약속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에 옮기는 튼튼한 여학일꾼이 되기 위한 알찬 준비를 이 짧은 공간에서부터 함께 해 나갑시다.

의의, 목표

1. 여학일꾼으로써의 지위, 역할을 규명하며 단련의 장으로 가져간다.
2. 총여학생회의 1년간의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여학생운동을 결의하고 고민하는 장으로 가져간다.
3. 여성문제에 대한 원론적 이해와 더불어 학내, 사회 전반적인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내는 공간으로 가져간다.
4. 각부서별 세로모임의 안착화의 계기로 가져간다.

구체적 일정

13일(첫날)

-입학식

여성문제란 그리고 학내여성문제는?

역사 속의 여성문제(정신대, 기지촌문제)

총여
새로배움터

14일(둘째날)

-총여학생회 1년 사업계획 공유

화면으로 보는 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한총련과 나

세로별 모임

15(세째날)

-여성문제 비디오 상영

점심 만들어 먹기

체육대회, 실천활동

총화 및 뒷풀이

조직화 방도

- 단어의 여부장모임을 진행하는 속에서 간부학교를 교양하고 조직화해내자.
- 단어나 단위학생회 속에서 간부학교를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자.
- 총여학생회에서는 각 부서별 단어 간부들과 과여부를 만나낸다.
- 최대한 대중적으로 학우들과의 공유 속에서 그리고 여학간부들만의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전체 학생회 단위 간부들도 알고 힘을 줄 수 있도록 선전, 조직화하자.

선전방도

- 화장실신문을 통한 선전(교재투와 함께 간부학교 일정등 대중적으로 알려내자)
- 프랑선전 (총여에서 3개)
- 학생회실 주위에 자보선전(각 단위당 3부 이상씩)

기타

시간 : 13일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14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15일은 11시부터

장소 : 외대 영사실(북쪽 본관 2층)

회비 : 개인당 5000원(자료집 및 식사, 뒷풀이비)

대상 : 단어일꾼, 과여부등 여학일꾼이면 누구나

세상을 향한 새로운 몸짓! 10년 따라잡기

민족조선 11대 자주적 총/여/학/생/회